



[직장 내 사적 질문의 적정선] 회사 동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1위, '집이 자가(自家)야?!

- 직장 내 사생활 질문의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? 직장 내 사적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(조선일보)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.
- 회사 동료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질문을 묻은 결과(복수응답), '집이 자가(自家)인지 여부'(42%)를 묻는 질문을 가장 많이 꼽았다.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와 스트레스가 '집 장만'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. 다음으로 '아이를 낳을 것인지 등 자녀 관련'(31%), '결혼을 할지 여부'(29%)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회사 동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(직장인, 복수응답, 상위 4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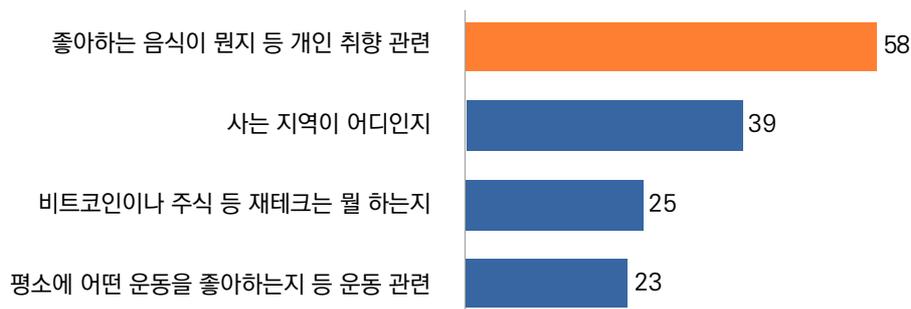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조선일보, "금대리, 아파트 자가야?" 직장인들 이런 질문 들으면 질색, 2025.01.25. (20~50대 직장인 814명, 2025.01.16.-01.17., 톨리언프로)
(<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weeklybiz/2025/01/23/ZFF6AVMSOBFT5KWTNTNMGV4ULA/>)

반면, '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등 개인 취향에 관한 질문은 O.K!

- '회사 동료에게 물어도 된다는 사적 질문'(복수응답)에 대해서는 '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등 개인 취향 관련'(58%)이 란 응답이 가장 높았고, 이어 '사는 지역이 어디인지'(39%), '비트코인이나 주식 등 재테크는 뭘 하는지'(25%) 등 의 순이었다.

[그림] 회사 동료에게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적 질문 (직장인, 복수응답, 상위 4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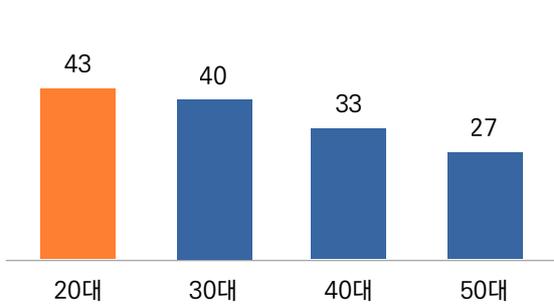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조선일보, "금대리, 아파트 자가야?" 직장인들 이런 질문 들으면 질색, 2025.01.25. (20~50대 직장인 814명, 2025.01.16.-01.17., 톨리언프로)
(<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weeklybiz/2025/01/23/ZFF6AVMSOBFT5KWTNTNMGV4ULA/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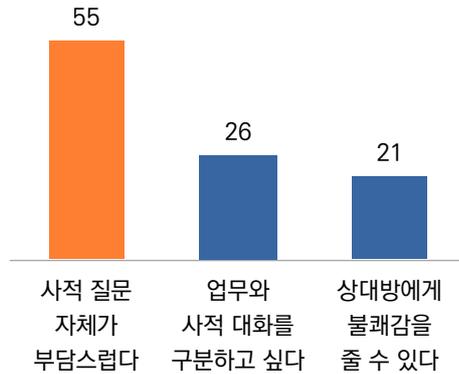
20대 직장인이 사적 질문 피하는 이유, ‘부담스러움’, ‘업무와 사적 대화 구분 필요’ 꼽아!

- 이번에는 ‘어떤 자리에서든 사적 질문을 하지 않는다’라는 질술큐문에 대해 ‘그렇다’라는 응답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, 20대로 갈수록 사적 질문을 피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. 직장에서 사적 질문을 기피하는 20대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(복수응답), ‘부담스럽다’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.

[그림] ‘어떤 자리에서든 사적 질문 하지 않는다’ 그렇다 응답률
(직장인, 연령별, %)



[그림] 사적 질문을 피하는 이유
(20대 직장인, 복수응답, 상위 3위, %)



※출처 : 조선일보, "숄대리, 아파트 자가야?" 직장인들 이런 질문 들으면 질색, 2025.01.25. (20~50대 직장인 814명, 2025.01.16.~01.17., 톨리언프로)
(<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weeklybiz/2025/01/23/ZFF6AVMSOBFT5KWTNTNMGV4ULA/>)